

시설청소년의 가족 인식 및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요구
-시설청소년과 퇴소자 대상으로-

The Perception of family and the demand for a group-based healthy family
support program for adolescents in a residential care
- A comparison between current and former residents -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 전공
강 사 배 은 숙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 전공
조 교 수 강 기 정

Dep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ekseok Univ.

Instructor : Bae, Eun-Sook

Dep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Univ.

Assistant Professor : Kang, Ki Jung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선행연구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mily awareness and the demand for a group-based healthy family support program for current and former residents of a residential care institution, and to provide information to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group-based family support program. To support this study, 1:1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interviews focused on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ir own families, perception of family in general, demand for a group-based healthy

* 주저자, 교신저자: 배은숙 (bes0627@hanmail.net)

family support program, etc.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perception of their own families, the “happiest” and “saddest” experiences they reported were related to their own families for both the current and former resident adolescents of the institution.

Second, as for the perception of family in general, both groups defined a healthy family as a family with members who “help one another in times of difficulties and live happily in harmony together”.

Third, regarding the educational contents that are essential to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family, a majority of the current residents answered cooking, yet a majority of former residents mentioned more practical education-such as the role of parents, child education, asset management, human relationships, and self worth enhancement, etc.

Key Words : 시설청소년(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가족 인식(perception of family), 건강 가정(Healthy family)

I. 문제제기

IMF 이후 경제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가정에서의 가족결속력 약화와 가족해체를 야기하였다. 2004년 말 현재 시설에 입소한 시설아동 및 청소년의 수는 279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9,014명에 이르며, 이들의 경우 입소 원인은 이혼 38.2%, 부모 가출 22.3%, 유기 10.1%, 부모사망 3.2%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4).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은 대개 부모의 실업, 빈곤, 가정불화, 학대 등의 원가족 관계에서 부정적인 가족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입소 원인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기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청소년의 대다수는 원가족에 대한 양가감정과 부정적인 가족인식을 가지고 있다(이양숙, 1999). 이의 결과, 시설청소년은 정서적인 불안정 및 사회적응의 문제를 가지며, 일부는 이탈행동 및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Leathers, 2000; Roy, et al., 2000 재인용).

예를 들어, 시설청소년의 원가족 경험에서 시설보호 이전의 부모-자녀유대관계 경험은 우

울,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에 영향을 주고, 원가족 관계에서의 생활사건은 비행, 공격성 등의 행동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정선옥, 2002; 유안진 외, 2001). 또한 시설청소년의 분열된 가족관계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현되어,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Gries, 1986 재인용). 특히, 이와 같은 시설청소년의 부정적인 가족인식 및 심리, 사회적 부적응은 퇴소 후 사회적 자립생활에 부적응을 낳으며, 성장과정에서 건강한 미래 가족에 대한 모델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건강한 가정형성에 어려움을 갖는다(강복정 외, 2000; 신혜령, 2001; 이미혜, 2002).

지금까지의 시설청소년과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는 주로 심리사회 특성에 관한 연구(정선옥, 2002; 최나야 외, 2002; 유안진 외 2003; 김기영 외, 2004; 김춘경, 2004; 현은민 외, 2005), 사회적응 및 자립에 관한 연구(유안진 외, 2001; 신혜령, 2001; 강복정, 2002; 박은선, 2005), 가족상 및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연구(강복정 외, 2000; 이양숙, 1999; 정영순, 2000; 성미영, 2001; 이순영, 2001; 이수희,

2005) 등이 있다. 반면,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시설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연구(Susan McEvilly Kool, *Family Relations*, 1997)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Mckinney, Lora-Ellen, 1987; Leathers, 2000; Roy, et al., 2000; Gries, 1986; Kool, Susan McEvilly, 1993),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Mckinney, Lora-Ellen, 1987; Kool, Susan McEvilly, 1993, Jr. A. O. Sultzberger, 1981), 가족복구에 대한 연구(Crenson, 1998; Stimpfer, 2002) 등이 발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을 볼 때, 이미 국외에서는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 및 자립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일부 논문(강복정, 2002)에서 시설청소년 대상의 자립준비 및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도 주로 시설의 환경적 특성을 중심으로 시설청소년의 생활에 접근하고 있으며, 원가족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접근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과의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설청소년과 퇴소자를 대상으로 가족인식과 건강가정교육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청소년들이 퇴소 후에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아정체감 확립 및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I. 선행연구

1. 시설청소년의 이해

「아동복지법」제 14조에 의하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양육시설”이라고 하여 정부나 민간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법률 제 072111호, 2004). 시설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를 떠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004.1.29 법률 제 7143호)。

시설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사회적 대인관계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설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은, 부모에게 받은 정서적 박탈 때문에 성인들에 대해 공격적이고 난폭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신은주, 1995; 신인숙, 1999). 지적활동이나 정서적 안정감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부족하며, 일상행동도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충동적이고 지배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되었다(노태화, 1974; 양숙미, 1994). 또한 이들은 진실한 느낌을 나타내지 않음, 친밀감 결여, 쫓대 없는 태도, 도벽, 집중력의 결여 등과 같은 발달상의 역기능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John Bowlby, 1965; 이현옥, 2002에서 재인용). 시설청소년은 입소 때부터 이미 불우한 환경과 정서적 불안이 가득한 상황에서 유연성과 개성을 상실하게 되고, 의욕을 잃고 독창성이 둔화되며 책임감이 박탈당하는 등의 특성을 보인다(Kadushin & Martin, 1988: 윤정

1) 본 연구는 연고자는 있지만 질병, 이혼, 사별, 교수도 수감, 별거, 경제적인 이유, 기타 사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시설양육의 보호아래 있는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여 시설청소년이라 정의한다.

만, 2004 재인용). 결국, 시설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은 공격적, 충동적, 부정직함, 의타심, 이기심, 반발심, 열등감, 심적 불안감, 인내력 부족, 도벽성, 의욕부진, 책임감 결여, 낮은 자아정체감 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설청소년들의 사회적 대인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낮은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인 관계형성의 경험이 적고, 사회적·물질적 혜택을 적게 받은 경험으로 인해 또래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인협, 1985; 신혜령, 2001; 윤성지, 2001). 또한 의타심, 이기심, 반발심, 열등감, 심적 불안감 등 시설병리학적 성격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 능력, 성취감 등이 결여되기 쉽다고 하였다(김수진 2002; 정선옥, 2002). 특히, 시설청소년들은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의 모델이 부족하여, 실제 미래 가족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신혜령, 2001; 이미혜, 2002). 이와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특성에 반해 몇몇의 연구에서는 시설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결핍을 시설의 동료들과 접촉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회복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특히 시설에서의 생활을 통해 다양한 부모상을 간접적으로 접함으로써, 자기 통제력과 충동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동료들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동기화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단체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경쟁심이 조성되어 일반 가정에 비해 사회성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성영혜·김연진, 1997; 윤정만, 2004에서 재인용).

2. 시설청소년의 가족인식 및 건강가정 형성 집단 프로그램 요구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생활양식, 행

동 양식, 가족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전인적인 학습의 장이다. 가족인식은 가족 정체감의 확립을 분명하게 하고, 개인이 가족을 구성하게 될 때에 건강한 가정형성의 근거와 준거 틀이 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지각하고 부모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모의 이미지는 개인의 자기상을 갖게 하는 근원적 힘이 되며, 개인의 자아정체성 확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어느 사회보다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시설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가족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김영희·최명선, 2001).

지금까지 일반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부모의 애정 관계를 다룬 연구(정현희·오미경, 1993; 백양희, 1997; 최외선 외, 2001), 행동문제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민하영, 1991; 정기숙, 1993; 정유미, 1998; 류경희, 2004), 의사소통문제를 다룬 연구(정문자, 1997; 오재연 외, 2003, 한영숙, 2005; Chilman, 1988), 부모상을 다룬 연구(이춘재, 1991; 김귀숙, 1999; 정은희 외, 2004.) 등이 진행되어 왔다. 이의 연구결과, 청소년기는 가족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가정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므로, 청소년의 가족인식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가족인식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다(김인숙·유영준 2004; 김성일 외, 2001; 유지연·박정윤, 2005).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가족인식이 중요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시설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가족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외 논문을 토대로 시설청소년의 건강가족 형성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요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시설청소년은 원생들, 양육자, 시설종사자의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정과는 일부 다른 현실에 있다(Rutter, 1979; Zigler, 1971: 노혜련·장정순, 1998에서 재인용). 시설청소년들에게 있어 원가족 경험은 시설보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시설청소년이 시설보호 이전의 원가족 관계를 공감적이며 따뜻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그리고 원가족과의 생활에서 변화를 적게 경험할수록 심리사회적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심리정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정선숙, 2002). 또한 시설청소년에게 나타나는 학업부진, 집중력 결여, 생활의욕 결여, 감정표현 부족, 미래에 대한 자기정체성 부재 등의 현상은 시설보호 이전의 가족 갈등과 시설 입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장영인 역, 1995).

한편 시설청소년들은 입소에서 퇴소에 이르기까지 부모체험에 대한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유아기나 학령전기에는 부모에 대해 막연히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단계를 거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의 부모를 보고 상상하며 그리워하게 된다. 사춘기 초기에 들어서면서 부모를 원망하며 잊혀져가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는 각 단계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회환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춘기 후기에는 서서히 회환되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점차 운명으로 돌려버리는 과정을 겪는다(이양숙, 1999).

시설청소년은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도 서로 다른 심리 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다.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해 있는 경우에 불안 행동, 미성숙 행동, 위축 행동 등의 행동문제를 나타낸다. 부모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시설아동의 내면적인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이순형·이강이·성미영, 2001).

시설청소년들의 원가족 경험 및 인식이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물론, 퇴소 후 건강한 미래 가족 형성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Thoburn(1994)은 시설청소년들 원가족과 간헐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의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시설청소년이 원가족과 분리된 채 생활하더라도 이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지속할 경우,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덜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설청소년들은 부모의 실직, 가출,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경험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양육 및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시설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못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형성 및 대인관계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모델이 부재하여, 가족에 대한 순기능과 가족원간의 역할 등에 대해 거의 무지한 상황으로 결혼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갈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존한 가족들과 경제적 문제,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이별은 충격적인 경험으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설 입소 전·후의 가족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을 중요한 체계로 포함시켜 개입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강복정, 이정복(2000a, 2000b)도 대부분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시설청소년들은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독립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 장애요인과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 가족에 대한 연구와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설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원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정적인 원가족 경험을 분리하며 긍정적인 가족모형을 확립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족복지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미래가정에 대한 설계와 올바른 배우자의 선택 및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시설청소년 12명, 퇴소자 11명으로 총 23명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은 00아동복지시설 담당자와 면담 후, 가족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 중 시설의 담당 선생님 추천과 참여를 희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퇴소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혼자 3명, 미혼자 8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의 시설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학년은 중1에서 고2까지로 평균 연령은 15.7세이고, 성별은 남자 7명, 여자 5명이다. 입소시의 연령은 5세에서 15세로 평균 입소연령은 9.8세이며, 입소당시 가족관계

<표 1-1> 시설청소년의 일반적 배경

시설청소년 (가명)	학년 및 현재연령	성별	입소 시 연령	입소당시 가족관계	입소동기
A	고2/18	남	6세	타 영아원에서 넘어옴	부의 폭력으로 모 가출
B	고2/18	남	7세	아버지, 본인	부자가정으로 8월 행방불명
C	고1/17	여	5세	부모, 오빠	부의 생활무능력, 모의 가출
D	고1/17	여	13세	동생 2명	친모가 아동학대혐의로 구속 중, 계부가 알콜중독으로 자녀양육불가
E	고1/17	여	15세	부모, 남동생	잡은 부부싸움으로 가정파탄, 부모학대로 입소
F	고1/17	여	9세	부모, 남동생	이혼과 부의 구치소 수감 등의 이유로 돌아올 때까지 시설보호의뢰
G	중1/13	남	11세	부모, 형, 동생, 할머니. 친척(안 밝힘)	이혼 및 부모학대
H	중3/16	남	8세	동생	남편 무능력으로 모 가출
I	중1/13	남	5세	부모, 누나, 남동생	부모이혼
J	중2/14	남	12세	'고아'라고 말함	부의 무능력과 낭비벽으로 인한 모 가출, 가정파탄
K	중2/14	여	13세	할머니, 삼촌, 언니	친조모의 양육곤란으로 일시보호
L	중2/14	남	13세	기록하지 않음	이혼, 경제적 부족이유

〈표 1-2〉 퇴소자의 일반적 배경

퇴소자 (가명)	현재연령	성별	입소시 연령	결혼 여부	입소당시 가족관계	입소동기	현재 직업
M	21세	남	8세	미혼	부, 누나	이혼/부 재혼	생산직
N	20세	여	3세	미혼	자매 4명(언니)/이혼	타영아원에서 음	회사원
O	24세	남	8세	기혼	부, 여동생	이혼/부양능력 무	생산직
P	25세	남	4세	미혼	연고자없음/ 모가출	미아	회사원
Q	25세	남	5세	미혼	누나	기아/부의 희귀병 으로 자녀양육 불가	대학생
R	21세	남	7세	미혼	부, 누나,	이혼/부의 외도, 폭력	생산직
S	30세	여	3세	기혼 (사별)	연고자 없음	기아	피아노학원 강사
T	21세	남	7세	미혼	부, 여동생	이혼/부의 무능력	회사원
U	39세	여	3세	기혼	연고자 없음	기아	시설봉사원
V	35세	남	11세	기혼	할머니, 남동생	모 가출, 조모 경제적 이유로 부양능력 불가	회사원
W	29세	여	9세	미혼	엄마, 오빠, 여동생	미아	어린이집교사

에서 부모가 있는 아이는 11명이고, 부모가 없는 아이는 1명이었다. 이들의 입소 동기는 주로 가족해체, 이혼, 학대 등이다.

<표 1-2>의 퇴소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연령은 20세에서 39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6.4세이고, 성별은 남자 7명, 여자 4명이다. 입소시의 연령은 3세에서 11세로 평균 입소연령은 6.2세이며, 입소 당시 가족관계에서 부모가 있었던 퇴소자는 5명이고, 없는 경우는 6명이었다. 이들의 입소 동기는 주로 이혼, 기아 등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00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퇴소자의 원가족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및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를 알

아봄으로써, 추후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요소를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표 1-3〉 연구내용

구분	내용
1. 원가족 및 가족에 대한 인식	가. 원가족 관계 나. 원가족 경험 다. 원부모에 대한 감정 라. 가족관 마.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
2. 미래 가정에 대한 설계	가. 가정설계 나. 가족관계 다. 가정경제
3.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	가. 건강가정 형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요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법의 하나인 심층적인 질적 면접법(in-depth qualitative interviewing)을 이용하였고, 1차 면접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숙독하여 유사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는 SPSS/PC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표 1-3>과 같다.

응답자와 만남이 이루어진 경로는, 본 연구자가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요구조사를 실시함을 시설담당선생님과 시설청소년에게 공지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선정하였다. 퇴소자는 동일한 내용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알린 후, 희망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시기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이다. 응답자와의 만남은 시설청소년은 다목적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퇴소자는 다목적 상담실, 공원, 찻집, 직장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은 각 2회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추후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뒤 보충해야 할 내용을 추가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허락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여 인터뷰가 끝나면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자는 20여년간 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청소년 및 퇴소자와 기본적인 신뢰감과 래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었다. 연구설계를 위해 타 시설 종사자들과의 3차례의 회의를 하였고, 전문 슈퍼바이저의 지도를 받았다.

3.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원가족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1)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원가족 관계는 어떠한가?
- 1-2)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원가족 경험은

어떠한가?

- 1-3)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부모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가?
- 1-4)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가족관은 어떠한가?
- 1-5)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미래가정에 대한 설계는 어떠한가?

- 2-1)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가정설계는 어떠한가?
- 2-2)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설계는 어떠한가?
- 2-3)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가정경제에 대한 설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건강가정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요구는 어떠한가?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원가족 및 가족에 대한 인식

가. 원가족 관계

시설청소년들과 퇴소자의 원가족 관계는 <표 2>와 같다.

<표 2>의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원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혼이나, 부모의 가출, 학대 등으로 입소한 상태이다. 현재 원부모와의 교류 상태를 보면, 6명이 교류를 하고 있는 반면, 퇴소자의 경우는 부모 이혼으로 입소한 경우가 5명, 입소당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4명이나 있었다. 특이한 사실은 입소당시 미야로 들어온 경우(영아 때 들어와 입소기간이 긴 경우)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표 2〉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원가족 관계

시설청소년(12명)		퇴소자(11명)	
	입소경로 및 현재 원가족과의 교류		입소경로 및 현재 원가족과의 교류
A	부의 폭력으로 모 가출. 타 영아원에서 어 음. 부모에 대해 모름	M	부(재혼)와 친모사이에 누나 2명이 있음. 전 처 소생 형제3명 있음
	초등학교 때 1번, 부와 교류경험 현재는 없 음. 친조부와 교류 있음		졸업 후 2번 집 방문(반기지 않음)하고 그 후에는 교류 없음. 누나와 교류
B	부자가정으로 부와 살다가 1989년 8월 행 방불명됨	N	부모 이혼으로 입소됨(타 영아원에서 넘어 옴). 언니 4명 (본 시설출신)
	교류 없음		모, 언니들과 자주 교류 있음
C	부의 무능력으로 모 가출. 친구 집에 맡겨 놓고 행방불명됨. 오빠와 함께 입소함	O	부의 무능력으로 모와 이혼으로 입소함. 부, 여동생
	오빠와 퇴소 후에 교류 있음. 부와 가끔 교 류 있음		부와 여동생(졸업)과 교류 있음
D	친모(수감 중), 계부(알콜 중독) 양육불가로 동생 2명과 함께 입소됨	P	연고자 없음. 미아
	교류 없음		교류 없음
E	부모학대로 할머니가 양육하다 시설에 옴. 부, 모(사망), 계모, 남동생	Q	부의 유전성 피부희귀병(얼굴 등 검은 점) 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워 공원에 남매 버림.
	외할머니와 가끔 연락하고 부모와는 교류 없음		부모 교류 없고, 누나(퇴소)와 현재 동거
F	부모이혼. 부(수감 중)양육불가로 입소됨. 모, 남동생	R	부의 외도, 가정폭력으로 이혼. 부, 누나
	모와 자주 교류 있음		퇴소 후 누나, 부와 함께 살고 있음. 모와도 가끔 연락이 있음
G	부모 이혼, 부의 자녀학대로 입소됨. 형, 동 생, 할머니, 친척(구체적으로 안 밝힘)	S	연고자 없음
	부와 교류 있음		교류 없음
H	부의 무능력으로 모 가출 후 동생과 함께 입소함	T	부의 무능력으로 이혼. 부, 여동생(시설)
	부와 가끔 교류 있음		여동생(시설), 부와 교류 있음
I	부모(이혼), 누나, 남동생	U	연고자 없음
	교류 없음		교류 없음
J	부의 무능력과 낭비벽으로 모와 이혼. 고 아라고 스스로 말함	V	할머니, 친척(고모, 삼촌),남동생
	교류 없음		교류 없음
K	할머니, 삼촌, 언니(친조모의 양육불가로 입소함)	W	연고자 없음. 미아
	언니와 교류 있음		모(재혼), 오빠, 남동생과 교류 있음
L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이혼 후 입소됨.		
	부모 가끔 교류 있음		

퇴소 즈음 대부분 원가족이 다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퇴소자에게 부양과 경제적인 짐을 떠안기는 사례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²⁾

나. 원가족 경험

시설청소년의 원가족 경험을 보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인가?'라는 연구자의 질문에서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가 4명이고, 가족들과 같이 있었거나 놀러갔을 때가 4명, 나머지 4명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가장 슬펐던 기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부모님과 헤어졌을 때가 3명, 부모나 동생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가 3명, 시설에 들어왔을 때가 3명, 부모가 학대했을 때가 1명(E)이고, 기억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이었다.

한편, 퇴소자의 응답에서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가 2명, 가족이 비록 없지만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가 1명,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이 행복했다가 2명, 의견이 잘 맞고 단합이 잘 될 때가 1명, 자신이 태어나 세상의 빛을 본 것이 가장 행복했다가 1명,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가 2명,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이었다. 반면에 '가장 슬펐던 기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집안형편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가 3명, 가족끼리 무엇을 하든지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가 될 때가 2명, 부모의 가치를 모를 때가 1명, 시설에 있을 동안에 끝까지 형제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것이 2명, 시설에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1명, 기억이 없다가 2명으로 슬펐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행복했던 경험'과 '슬펐던 경험' 모두 가족과 관련되며, 대부분 원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가장 슬픈 기억도 원가족과 헤어진 사실로 나타났다. 특히 E는 친부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을 잊을 수 없는 듯 태도에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시설청소년이나 퇴소자 모두 기억이 '없다'고 응답을 회피한 대상자 중에는 부모학대 경험이 있거나, 부모이혼이나 유기 등의 상처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퇴소 후 원부모와 재결합을 원해도 부모의 재혼 때문에 결국 가족과 다시 떨어져 살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표현했다.

다. 원부모에 대한 감정

시설청소년의 응답결과를 보면, 부모 두 분에게 감사한다는 응답을 한 원생이 5명, 한쪽 부모에게만 감사한다가 2명, 감사할 필요가 없다가 2명, 무응답이 3명이었고, 퇴소자의 경우는 부모 두 분에게 감사한다는 응답을 한 원생이 4명, 한쪽 부모에게만 감사한다가 2명, 감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가 2명, 무응답이 3명으로 나타났다.

위의 응답결과에서 '두 분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은 것을 볼 때, 시설청소년이 평소에 부모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막상 질문에 응답은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면담에서 퇴소자의 경우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평소에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어 원부모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2) 본 연구자가 24년 동안 00아동복지시설에 있으면서, 원부모가 생활능력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서 시설청소년이 퇴소 후 취업할 즈음이면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힘든 부양과 경제적인 짐을 떠맡기려고 찾아온 유사한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 심지어 자녀학대와 사기전과로 수감되었던 부가 찾아와 자녀의 이름으로 카드빚을 지게 하고, 퇴소자가 부의 그런 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경우도 있다.

도 있었지만, 대부분 동시에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 이들의 욕구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성인이 되면서 부모의 태도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P는 '부모에 대한 존재자체를 부인'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는 입소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과 교류가 없는 경우이다. 막상 부모와 함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그동안 단절된 관계와 서로 다른 문화차이로 인해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친밀감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M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다.

라. 가족관

시설청소년의 응답에서 건강한 가족이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족이다'가 6명,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는 가정이다'가 3명, '돈 걱정 없이 사는 가족이다'고 대답한 사람이 2명 이었다. 반면 퇴소자는 건강한 가족이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행복하게 사는 가족이다'가 5명,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3명, '화목하게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가족'이 2명,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가족'이 1명 이었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시설청소년(6명)과 퇴소자(5명) 모두 대부분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족'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답한 것을 볼 때, 시설청소년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 가정에서 가정폭력과 학대로 고통당했던 경험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돈 걱정이 없는 가정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원생들이 경제적인 고통의 이유로 입소한 배경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사실 시설관계자는 물론 청소년 자신과 다

른 사람들도 이들의 근원가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guilt feeling) 을 느낄 정도로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시설청소년의 마음에는 근원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이 깔려있으면서 동시에 지금은 가지지 못한 행복한 가족에 대한 동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

1) 이혼에 대한 태도

시설청소년은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결사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반대한다가 6명, 결혼했으면 자식을 책임져야지 왜 이혼을 하는가(B,E)라는 응답이 2명이었는데, 이는 본인이 부모 이혼의 직접적인 피해자라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1명,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가 2명, 무응답이 1명 이었고, 이혼에 대한 퇴소자의 응답에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가 5명,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가 4명,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다가 1명, 이유가 있으므로 할 수 있다가 1명 이었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청소년과 퇴소자 모두가 이처럼 이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퇴소자에 비해 시설청소년의 이혼에 대한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는데(B,E), 이는 최근 이혼으로 인한 시설입소가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시설청소년들이 가정해체로 인한 아픔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퇴소자의 응답결과에서도 극소수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재혼에 대한 태도

시설청소년의 응답에서 ‘재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가 5명, 추잡하다가 3명, 상처주는 일밖에 없는데 왜 하느냐가 1명 이었다. 또 재혼은 후에 자식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반대한다가 1명, 사랑한다면 재혼도 좋다는 사람이 2명 이었다. 반면, 퇴소자는 재혼에 대한 질문에 사랑한다면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므로 반대하지 않겠다가 3명이었고, 반대한다가 3명, 이혼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명, 상황에 따라 선택이 필요하다고 2명, ‘충분히 가능하다가 1명, 대체적으로 찬성한다가 1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 시설청소년 10명이 재혼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가정해체나 부모재혼으로 인해 입소된 경우이므로 부모에 대한 상처가 깊고, 또한 원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혼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E). 반면에 퇴소자의 경우 재혼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는데, 재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초혼보다는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더 나은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고 중립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도 보였다(N). 여기서 퇴소자는 시설청소년에 비해 재혼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미래가정에 대한 설계

가. 가정설계

가정을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배우자의 조건만을 알아보았다.

시설청소년의 응답을 보면 예쁘고 마음씨가 착한 자가 4명, 돈이 많은 자가 4명, 이해심이 많은 자가 3명이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가 1명이었다. 퇴소자의 배우자의 조건을 보면 자기생각이 분명하거나 자기 주관이 뚜렷한 자를 원한다가 2명이고, 맞벌이가 1명, 헌신적이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2명, 착한 사람이 2명, 현모양처가 1명,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1명,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가 1명, 무응답이 1명 이었다.

시설청소년은 퇴소자와 달리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그 외에 대체로 배우자의 조건에서 이들의 나이를 생각하여 볼 때 성숙한 면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시설에 오기 전에 근원가족에서 경험한 다양한 고통으로 인하여 배우자 상이 현실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퇴소자의 경우 이성교제를 갖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조건을 현실성 있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가족관계

1) 부부관계

시설청소년의 응답을 보면 ‘부부간에 중요한 점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항목에서는 ‘신뢰’가 가장 많았다. 시설청소년 모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존중과 사랑, 배려, 이해, 믿음(신앙), 예의 등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부부간에 중요한 점을 퇴소자의 가장 많은 답은 신뢰였다. 10명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아이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1명이었으며, 존중과 사랑, 믿음(신앙), 배려, 예의 등을 중복 응답하였다.

부부관계에서의 중요한 점으로 시설청소년, 퇴소자 모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

다. 이와 같은 응답은 아마도 입소 전 신뢰가 깨어진 부모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부모-자녀관계

‘미래에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란 질문에 시설청소년들은 자식에게 모범이 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모라고 응답한 사람이 4명이고, 자상하면서 굳세고 잘못을 지적해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는 부모가 3명, 그 외에 신앙과 사랑으로 품어주고, 유아심리를 배워 마음이 교류될 수 있는 부모가 1명,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2명이었다. 퇴소자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대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모가 5명, 관심과 칭찬과 격려를 끊임없이 주겠다고 부모가 3명,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키우고 화를 내지 않는 부모가 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 무응답이 1명이었다.

여기서 시설청소년과 퇴소자 모두 ‘자식에게 모범이 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설청소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해줄기를 원했으며, 그 외에도 자상하고 잘못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부모, 유아심리를 배워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예절을 중시하고 화내지 않는 부모, 자녀가 부모를 믿고 잘 따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부모, 같이 요리를 하고 관심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응답해 본인들이 입소 전, 혹은 결혼 후 가정에서 겪은 아픔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S).

다. 가정 경제

1) 금전관리에 대한 태도

시설청소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는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고 싶다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돈을 제대로 써본 경험이 없다가 3명, 잘 모르겠다가 1명 이었고, 퇴소자의 경우는 열심히 저축해서 알뜰하게 잘살고 싶다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고 싶다가 3명, 많을수록 좋다가 1명이었다.

시설청소년과 퇴소자의 대부분이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응답했으며, 시설청소년의 경우 돈을 많이 벌어서 실컷 써보고 싶다고 하였다. 반면 퇴소자는 퇴소 후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소비와 저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응답에서 시설청소년은 돈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퇴소자는 돈에 대한 기본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소 후 이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³⁾. 특히 S와 P는 시설에서 금전관리 및 소비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퇴소해 자립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와 사기를 경험했음을 호소했다.

3.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

시설청소년들이 미래의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해 퇴소 전 꼭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

3) 본 시설 퇴소자의 경우,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갖고 싶은 것은 무조건 사는 충동적인 낭비벽이 있거나, 혹은 많은 돈을 계획없이 타인을 믿고 빌려줌으로, 그로 인해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구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청소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퇴소 전에 건강가정형성을 위해 꼭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설청소년의 경우 요리, 육아에 대한 관심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절, 신앙(믿음) 등이 1명,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이 1명, 깊이 생각 안 해봤다가 3명 이었다.

퇴소자의 경우는 건강가정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으로 먼저 자신감 회복, 대인관계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5명이 응답했으며, 경제관념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부모역할, 육아법, 요리방법이 4명, 성에 대한 가치관 및 예절교육, 신앙(믿음)에 2명이 응답했다.

여기서 시설청소년의 경우 남녀 모두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건강가정 형성 프로그램으로 요리 외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퇴소자는 건강가정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으로 먼저 자신감 회복 및 대인관계에 5명이 응답하였고, 다음이 경제관념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부모역할, 육아법, 요리방법이 4명, 성에 대한 가치관 및 예절교육, 신앙(믿음)으로 2명이 응답하였다. 결국 퇴소자는 자아정체감이나 미래 가정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준비 없이 자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간관계와 가정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래 가정형성을 위해 부모역할 및 자녀교육, 자산관리, 대인관계 등의 가정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설계

한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시설청소년의 건강가정형성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설계는

다음과 같다.

시설청소년 및 퇴소자의 건강가정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를 바탕으로, 시설청소년의 성장, 자립, 결혼 준비 및 미래가족형성을 위해 후속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집단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첫째, 집단형성단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기, 둘째, 자존감형성단계에서 의사소통훈련 및 열등감 극복하기, 셋째, 대인관계설정단계에서 자기탐색시간 갖기, 원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회복하기, 넷째 건강가정생활교육단계에서 행복한 가정 설계하기, 좋은 부모역할 배우기, 행복한 가족테마여행, 다섯째, 종결단계에서 미래가족모형 그리기, 비전설정 등 전체 5단계 10회기의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을 갖게 하고, 집단성원이 자신을 개방하여 집단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므로 집단에 대한 응집력을 발전시킨다.

나. 놀이를 통해서 집단 성원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출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자기감정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나'의 다친 마음을 치료받는 기회를 갖게 하고, '내'가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역할극을 통해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시간을 갖게 한다.

다. 양육시설의 집단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의 전달이나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법과 역할극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라. 게임을 통해 '나'의 장점이 여러 사람 앞에서 높이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고, 상

대방을 칭찬해주는 의미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임을 알게 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표현을 하게 하므로 열등감을 극복하게 한다.

마. 선배와의 면담을 통해 퇴소 후 자립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 함께 나눔으로써 가정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게 한다.

바. 우정과 사랑, 10대의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이전의 이성교제의 차이점을 이해시키고 이성교제의 필요성과 주의사항, 에티켓 등을 학습하고 나아가 올바른 배우자 선택을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사.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가족역할을 학습하는 단계로 이 영화를 통하여 건강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상(건강한 부모역할, 자녀사랑, 책임성)을 간접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아. 요리와 같은 구체적 조작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구성원 간의 협동적인 상호작용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나아가 행복한 느낌과 함께 자립적인 삶의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자. 미래의 가족의 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해봄으로써 현재의 부정적인 가족상에서 변화하여 미래의 긍정적인 가족상을 기대하게 하고, 미래의 행복한 가족상(모형, Image)을 상상하고 설계해보게 한다.

차. 집단과정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대인관계와 가족에 대한 사고를 강화하고, 그동안 학습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새롭게 정리해보게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00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퇴소자를 대상으로 가족 인식 및 건강

가정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미래 가정에 대한 설계,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 등을 1:1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은 시설청소년과 퇴소자가 ‘가장 행복했던 경험’과 ‘가장 슬펐던 경험’ 모두 원가족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또한 원가족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응답을 회피한 대상자 중에는 부모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이거나, 부모이혼이나 유기 등의 상처를 경험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원가족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 양가감정을 나타내었다. 또 시설청소년, 퇴소자 모두 ‘어려울 때 도와주며 화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족’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싸우지 않는 가정’, ‘경제적 고통이 없는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였다. 재혼에 대해서는 시설청소년 대다수가 부정적인 응답한 반면에 퇴소자는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미래가정에 대한 설계에서는 배우자의 조건으로 시설청소년의 경우 경제력을 가장 우선시한 반면, 퇴소자의 경우는 사랑, 성격, 경제력 등 현실성 있게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고 있었다. 부부관계에서는 시설청소년과 퇴소자 모두가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로는 모두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가정경제에 있어서는 모두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건강가정 형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대다수 시설청소년들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으나, 퇴소자들은 부모역할, 자녀교육, 자산관리,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향상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즉, 시설청소년들이 갖는 가족생활 설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가족 배경 및 시설 환경의 결핍으로 집약될 수 있다. 즉 자연스런 가정생활 경험과 가족모델의 부족이 이들의 미래 가족생활설계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 시설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성격형성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들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은 결국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며, 특히 성인이 된 이후 결혼을 통한 건강가정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고, 미래의 건강가정을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청소년의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관계회복을 위해 재결합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치료해줄 수 있는 심리적 복지측면을 강조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부정적인 원가족 경험으로 파생된 상처와 부모에 대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억압된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둘째, 건강가족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역할모델의 양상을 가진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원가족과의 부정적인 경험을 분리시키

고, 현시대에 맞는 가치관의 양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미래가정에 대한 설계와 올바른 배우자의 선택, 건강한 부부관계 및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이고 상담 지향적이며, 중재적인 모델상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올바른 금전관리능력함양과 문제해결대처기술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넷째, 시설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사정, 기획, 실행 및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퇴소 후 자립생활에 장애요인이 되는 재정자립기반을 위한 정부의 현실성있는 지원이 요구되며, 성에 대한 가치관과 종교교육을 첨부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시설청소년들은 경제적·물질적 지원만으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상처를 치료받을 수 없으므로 정서적 안정 및 문화적 빈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업, 정부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복정(2002). 시설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0), 33-48.
- 2) 강복정, 이정덕(2000). 시설청소년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연구: 건강가족적 관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153-182.
- 3) 김기영 외(2004). 사회적 기술 증진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좋은 인간관계학회지2(1), 104-123.
- 4) 김귀숙(1999). 아버지상(Father Image)에 대

- 한 해석학적 이론의 적용과 사례 연구: Charles V. Gerkin의 해석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 5) 김성일, 김남희(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4(1), 75-89.
 - 6) 김수연, 정문자(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115, 181-192.
 - 7) 김춘경, 김기영(2004). 시설아동의 사회적 기술 증진을 위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지 8(1), 19-35.
 - 8) 김인숙, 유영준(2004).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인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283-307.
 - 9) 노태화(1974). 지능 및 장애생활 목표를 중심으로 본 보호시설 아동의 발달적 특성. 계명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10) 노혜련, 장정순(1998). 육아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4(4), 45-67.
 - 11) 류경희(2004). 실직 가족의 부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Satir 성장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11-236.
 - 12)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 13) 박은선(2005).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백경숙, 권용신(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15) 백양희(1997). 환경변인 및 내적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농촌, 도시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5(2), 33-47.
 - 16) 보건복지부(2004). 보건복지백서 2003.
 - 17) 성영혜, 김연진(1997). 아동복지. 동문사.
 - 18) 신인숙(1989). 시설아동의 집단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육아시설 중학생 중심으로. 서울여대대학원 석사논문.
 - 19) 신은주(1995). 1995년도 추계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자유논문발표집. 나남출판.
 - 20) 신혜령(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1) 양숙미(1994). 시설 청소년에 대한 집단사회사업 실천개입에 관한 연구: 사회기술 훈련 집단프로그램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 22) 오재연, 최정혜, 김행자(2003).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5(4), 55-66.
 - 23) 유안진 외(2001).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57, 135-149.
 - 24) 유안진, 민하영(2001). 시설 보호 아동의 자아정체감 및 내적인 통제 소재와 보육사가 평가한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0, 97-109.
 - 25) 유지연, 박정운(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1), 69-84.
 - 26) 윤성지(2001). 일반청소년과 보육시설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 비교. 성균관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27) 이강이, 이순형, 성미영(2003). 시설보호 유아를 위한 사회적 유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1(5), 41-58.
- 28) 이미혜(2002). 시설보호형태에 따른 보호 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 29) 이수희(2005).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의 개발과 적용: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1), 113-129.
- 30) 이순형 외(2001).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15(8), 79-89.
- 31) 이양숙(1999).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 연구. 충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2) 장인협, 감정기(1982). 아동시설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책. 사회정책연구 1. 174-185.
- 33) 장영인 역(1995).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인간과 복지.
- 34) 정기숙(1993). 소년비행의 동향과 가족병리와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143-155.
- 35) 정은희, 이미숙(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 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5-126.
- 36) 정무성(2003).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양서원.
- 37) 정선옥(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8) 정유미(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6.
- 39) 정영순(2000). 시설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 촉구방안. 한국아동복지학 9, 34-39.
- 40) 정현희, 오미경(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 41) 장인협(1984).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42) 최나야 외(2002). 시설 청소년의 대인관계 특성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61-174.
- 43) 최외선, 김갑숙, 최선남(2001). 편부모가족 자녀의 의사소통과 특성불안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191-174
- 44) 한영숙(2005).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사소통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3), 71-82.
- 45) 현은민, 박혜영(2005).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 46) Bowlby, J.(1965). Child care and the Growth of Love. London ; Baltimore: Penguin Books.
- 47) Chilman, C.S., Cox, F.M., Nummally, E. W.(1988). Employment and economic problems: families in trouble 1. London: Sage Pub.
- 48) Cordero, A.E. (2004). When Family Reunification Works: Data-Mining Foster Care Records. Families in Society 85(4), 571.
- 49) Costin, L.B. & Rapp, C.A.(1984). Child Welfare-Policies and Practice. McGraw-Hill Book Company.
- 50) Davis, I.P., Ellis-MacLeod, E.(1994). Temporary Foster Care-Separating and Reunifying Families. In J. Blacher(ed.), When There's No Place Like Home-Options for Children Living Apart from Their Natural Families. Paul H. Books Publishing.

- 51) Downs, S.W., Costin, L.B. & MaFadden, E.J.(1996).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Policies and Practice*. Longman Publishers.
- 52) Erera, P. I.(1997). Foster Parents' Attitudes Toward Birth Parents and Caseworkers: Implications for Visitation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511-519.
- 53) Goerge, Robert, Wulczyn, Fred, Fanshel, David(1994). A Foster care research agenda for the '90s. *Child Welfare*. New York: Sep. 73(5), 525-535.
- 54) Gries, L.T.(1986). The Use of Multiple Goals in the Treatment of Foster Children With Emotional Disorders. *Professional Psychology*. 17(5), 381-390.
- 55) Hutchinson. R. L, Tess, D, E. Gleckman, A, D & Spence, W. C(1992).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Resilient or risk?. *Adolescence* 27(106), 339-356.
- 56) Jr., A. O. Sulzberger(1981). Foster-care agencies lose contracts after city inquiry. *New York Times*. Nov(25), 31-40.
- 57) Kadushin, G., Egan, M. (1997). Educating Students for a Changing Health Care Environment: An Examination of Health Care Practice Course Content. *Health and social work* 22(3), 211.
- 58) Kool, Susan McEvelly(1993). process of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in context of foster care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 59) Leathers, S.J.(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 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 60) Mapp, Susan C. (2002). A Framework for Family Visiting for Children in Long-Term Foster Care. *Families in Society* 83(2), 175.
- 61) Marinus H. van IJzendoorn. Louis W.C. Tavecchio; Geert-Jan Stams; Mieke Verhoeven (1998). Attunement Between Parents and Professional Caregivers: A Comparison of Childrearing Attitudes in Different Child - Care Setting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60), 771-781.
- 62) Mckinney, Lora-Ellen(1987).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in foster care populations University of Washington.
- 63) Roy, P. Rutter, M.& Pickles, A.(2000). Institutional Care: Risk from Family Background or Pattern of Rearing?.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2), 139-149.
- 64) Susan McEvelly, Kool(1997).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in Foster Care. *Family Relations* 46(3), 263-269.
- 65) Tikoff, Valentina Kiyoko(2000). Assisted transitions: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orphanages of Seville at the end Old Regime. 1681-1831. Ph. D., Indiana University.
- 66) Wargar, C.L & Kleman, D(1986). Developing positive self-concepts in institutionalized children with severe behavior disorders. *Child Welfare* 2 165-171.

(2006년 4월 12일 접수, 2006년 5월 22일 채택)